

장수하고 싶습니까? 그럼, 안전벨트를 매세요

김 원 하 | 교통정보신문 발행인

◆설마가 사람 죽인다?

일상에서 흔히 '설마 그럴 리야 있겠느냐'고 하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설마'는 그럴 리야 없겠지 하고 속으로 믿고 있는 일에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뜻으로 설마~하며, 마음을 놓는 데서 탈이 난다는 것이다. '그 전에 그렇게 했더니 괜찮더라, 설마 무슨 큰 일이 있을라구?' 하는 안일한 생각에 의한 의사결정은 큰 손실을 불러 올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IMF 외환위기 직후 우리 나라의 많은 대기업, 은행 등이 '설마! 설마!' 했다가 큰 낭패를 당한 사례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대마불사(大馬不死)' 즉, '큰말은 죽지 않는다'고 했지만 잘 나가던 은행들이 문을 닫고, 대우그룹이 붕괴되고, 기아자동차가 넘어갔다. 그릇된 신념을 굳게 믿고서 과거의 관행대로 행동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현실보다는 '설마'에 의존한다. 또 '설마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성취하기 힘들다. 이미 자신 스스로 될 수 없다고 결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매일 같이 수백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 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위반을 밥먹듯 한다. 결국엔 교통사고를 당



(▲노르웨이 교통부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

하거나, 이로 인해 일찍 세상을 하직하게 된다. 어르신네들이 '조심 덕은 있다'는 말을 자주 쓰는 것도 인생을 살면서 느낀 지혜일 것이다.

◆'만약'은 사람을 살린다.

미국 사람들은 'if'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이를테면 If there's no shadow, spring will come early.(만일 그림자가 없으면 봄은 빨리 올 거야.)

if는 '만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같은 것인데, 이런 말을하면 후자는 너무 소심하다거나 쫄쫄하다고 할지 모르나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심하는 것은 화를 최소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다. 이 때도 맹목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 난 버스가 정류장을 뒤흔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 가로수나 튼튼한 시설물 뒤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습관을 갖는다가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도 혹시 신호를 무시한 차량은 없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갖는다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만약을 생각하여 주의를 기울인다면 죽을 처지에 놓였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다.

다음은 지난 2월 중순 YTN의 보도 내용이다.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순천 기점 33km 지점에서 승용차와 고속버스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2살 황 모 씨가 숨지고 충돌의 여파로 버스가 앞서 가던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53살 송 모 씨가 다쳤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승객 5명이 타고 있었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전벨트가 불편해서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자신에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과 몸에 배어있지 않은 습관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예전 고속버스에서는 차를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했으나 요즘은 그런 방송마저 하지 않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1969년 체코, 안전벨트 착용 시작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96%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나 최근 점차적으로 떨어져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다. 그러면 생명 띠라고 할 수 있는 안전벨트는 언제부터 착용하게 되었을까? 기네스북 에 의하면 69년 공산국가였던 체코가 처음이다. 이듬해 아이보리코스트, 71년 일본, 72년 호주, 75년 베네룩스3국 순으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고, 자동차가 가장 많은 나라 미국은 80년대 들어 시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벨트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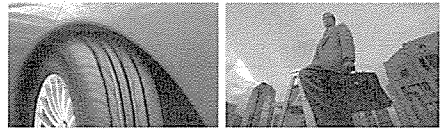
의무규정이 도입된 것은 지난 90년 11월2일이다.

80년대 후반, 당시 MBC에서「푸른 신호등」을 담당하던 O모 PD와 필자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을 때였다. 때 맞춰 당시 도로교통안전협회 민운기 연구관은 '안전벨트가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여 안전벨트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었지만 당국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안전벨트 착용은 불의 사고로부터 생명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운행 시 심리적 안정을 준다는 것이 미국 국가안전협회(NSC)의 연구 결과다. NSC의 연구에 따르면 차량 충돌사고 시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경우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률은 45%, 중상율은 50% 감소된다고 발표했다.

NSC는 체중이 60kg인 운전자가 시속 50km로 달리다 반대편에서 같은 속도로 달려오는 자동차와 정면충돌했을 때 18톤의 쇳덩어리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매었다면 그 충격은 2톤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때문에 충돌사고 시 자신의 신체와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규제에 못지않게 모든 시민 스스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 자동차 왕국인 미국도 정부와 정치권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약 600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80만 명이 다치고 4만2,800명이 숨졌다고 한다.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운전 부주의가 80~85%를 차지



한다. 자동차 결함이나 도로시설 불량 등이 나머지 15%를 점하고 있다. 또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교통사고 사망과 생존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미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3만1,000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중 56%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고속도로안전국은 안전벨트 착용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1만5,000명가량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운전자의 80%가량이 운행 중 안전벨트를 매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운전자와 승객들이 100%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연간 7,000명가량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왔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방안이 강력 추진되고 있다.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찰이 차를 세워 단속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27개주는 속도위반 등 다른 이유로 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뉴햄프셔주는 유일하게 안전벨트 관련법이 없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8조의 2항은 1) 자동차운전자는 안전벨트를 매야하며, 옆좌석(조수석)에 탄 사람에게도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 하고 유아일 때는 유아용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안전벨트를 매야하고, 2) 즉 뒷좌석에 앉은 사람에게도 안전벨트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승용차는 유아가 뒷좌석에 탈 때는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는 조수석에 태우거나 뒷좌석에 태우거나 가리지 않고 유아용 보호장구(보통 베이비시트라고 함)를 장착시킨 후 안전벨트를 매주도록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 사고시 유아가 차 밖으

로 튕겨져 나가게 했다면 그 과실은 약 20% 가량이라는 판결도 있다.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3만원 짜리 스티커가 발부되는데 어떤 운전자들은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사고를 당하였을 때 안전벨트의 착용으로 오히려 차안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차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이 차라리 안전한 것은 아닌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핸들을 꼭 잡으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든지...

운전자 정모씨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한 규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 한다'고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어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불만보다는 운전할 때는 착용하는 습관부터 길러야 한다.

◆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법이 마련되어서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안전벨트 착용도 그랬다. 90년대 들어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1만 명을 넘어서자 경찰 당국에선 비상이 걸렸다. 교통사고 다발국가라는 여론이 일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너무 커져갔기 때문이다.

이 무렵 필자가 치안본부에 들렀더니 안전을 담당하는 장모 계장이 '교통사고 줄이는 좋은 계획이 없느냐?'고 물어왔다.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자,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바로 안전벨트 강제 착용이라고 하자, 장 계장은 별거 아니라는 반응이었다. 그래서 확



실하게 하기 위해 사고차량이 많이 볼 수 있는 현대자동차 원효로 공장을 둘러보려고 했다. 그 길로 공장을 들렀더니 각지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견인되어온 30여대의 차량을 볼 수 있었는데 앞 유리창에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머리카락이며 혈흔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안전벨트만 착용했다라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장 계장한테 들었던지 그 후 안전벨트 강제 착용과 단속이 이루어져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제 미국에서는 개에게도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입안되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하고 있다.

“장수하고 싶습니까? 그럼 안전벨트를 매세요!!!”